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찬탄하리라 외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9년 5월 21일

오바마와 네타냐후

오바마와 네타냐후의 만남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미국의 입장은 맹약국에서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을 중재하는 중립적 존재로 변해가는 듯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시점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스스로 이스라엘의 동맹임을 자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전세계 메시아의 몸, 곧 예수아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들만이 성경의 언약에 충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입장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평화 회담을 지속하는 데에는 호의적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측에서만 양보하는 것이 아닌 기브 앤 테이크 (give and take)의 공평한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하며 외치는 구호 중 하나가 '땅과 평화의 교환 (Land for Peace)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슬람 국가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전체 면적은 약 13,500,000km²입니다. 이스라엘의 면적은 약 20,000 km²입니다. 2만 km²를 가진 측이 1천 3백만 km²를 가진 측에 땅을 양보하는 것이 평화의 열쇠라는 주장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온 땅의 그의 영광으로 찬만하리라

성경에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만하리라고 약속하신 구절들 다섯 군데를 보겠습니다.

민 14:21 □ 여호와와 그의 영광이 온 세계에 찬만할 것...

사 6:3 □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찬만하도다

사 11:9 □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찬만할 것임이니라

합 2:14 □ 여호와와 그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시 72:19 □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찬만할지어다

저는 최근에 태초의 지구가 하나님의 임재로 찬만한 모습을 꿈 속에서 보았습니다. 자연을 구성하는 나무, 강, 산 모두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경적 낙원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롬 8:19-21 □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인간의 영은 혼과 연결돼 있으며, 혼은 육과 이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원래 땅으로부터 취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적 육체와 지구라는 땅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과 혼은 육을 떠나고 육은 땅으로 돌아가 부패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부활은 지구의 회복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사체는 땅 속에 있습니다. 부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 육체들을 채울 것이고, 새롭고 영광스러운 형태로 (혹은 영원한 형벌을 향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영광의 능력이 동일하게 땅에 찬만하여 자연을 원상태로 복구시킬 것입니다.

땅과 인간의 육체는 언약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의 몸은 영광을 잃었고 지구는 타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 영화된 육체를 입을 때 (**빌 3:21; 고전 15:35-49**), 자연 세계도 그 영광을 회복할 것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에는 땅의 재건이 있습니다 (**마 19:28; 계 21-22**). 부활과 재건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고후 5:17; 계 21:5**).

하나님의 영광이 땅을 채우리라는 약속은 현재 이스라엘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대한 논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엄청난 국제 사회의 이목이 이 조그마한 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도가 지나쳐 보이고, 정치적으로만 따져보면 말이 안 됩니다. 이 분쟁에는 영적 뿌리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성지가 이슬람의 소유라 주장합니다. 성경에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주셨다는, 분명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 12:7; 13:15; 15:18; 17:8; 26:3; 28:13; 35:12**).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이 언약들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약속의 주된 원인은 유대 민족이 살 땅을 마련해 주시는 (물론 분명히 그것도 포함되지만)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땅을 회복하시는 과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최초의 참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 및 가족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시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나머지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지구 전체에 대한 소유권의 법적 권리가 확립된 것입니다. 지구가 다시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가 될 때, 온 땅은 그 영광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슬람 지하드나 세속 인본주의 모두 이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에 반기를 들고 있고,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대한 성경의 언약을 어떤 식으로든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성경의 언약과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권,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리라는 예언들을 믿습니다.